

## 미네소타대학 제임스 포드 벨 도서관에 소장된 유럽의 상업 확장 시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동해의 지도학적 표현

David Lanegran  
(미국 메칼레스터대학 교수)

현재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GEGN)는 지명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는 영토내의 장소와 지형적 특색에 대해서 지명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 영토 밖의 바다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

1596년에 유럽인 Hondius가 최초로 한국을 섬으로 지도에 표현하였다. (그림 2) 참조, The Mercator-Hondius Atlas, 1628). 1631년에 제작된 Mercator-Hondius Atlas에는 한국이 반도로 정정되어 그려졌다 (그림 3 참조).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James Ford Bell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 중, Atlas Japonensis에서는 일본의 서쪽 해역을 "De Coreer Zee" 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림 12 참조). 1680년에 런던에서 발간된 "Relations & Treatises Singular and Curious of John Baptista Tavernier Baron of Aubonne"이라는 책에서는, "A Mapp of the Isles of Iapon"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Sea of Coreer"와 "Oriental Ocean"의 명칭이 쓰여지고 있다 (그림 15 참조). 1795년 런던에서 H. Ridgeway & W. Button에 의해 발간된 책에서 J. Russel이 제작한 지도에서는 동해를 "Gulf of Corea"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림 16 참조). 과거 영국에서 출판된 중국 및 한국 관련 지리서에는 동해를 "Korean Sea"라고 표기하였음이 분명하며, 일본에 관한 책에서는 "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과거 표기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대해 중립적인 명칭이 필요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과거에 많은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를 "Korean Sea" 또는 "Sea of Corea" 라고 표기한 증거들이 있지만, "East Sea"가 더 자주 사용되었던 것 같다.